

국립해양박물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후 9월 15일부터 다시 문 연다

- 동서양의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500여 점 전시, 몰입감 높일 수 있는 공간 구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태만)은 국립해양박물관 상설 전시실 개편사업을 마치고 9월 15일(금) 오후 4시부터 3, 4층 상설전시실을 공개한다.

2012년 7월에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은 관람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전시문화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콘텐츠 전면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상설전시실 개편은 지난해 기획전시실 개편과 올해 2월 수족관 개편에 이은 3번째 개편사업이다.

새롭게 단장한 3, 4층 상설전시실에서는 동서양의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500여 점을 선보이며, 채광과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고 기존의 공개형 전시실을 구획별로 나눠 몰입감을 더했다. 또한, 다음 전시실로 넘어갈 때마다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짜임새 있게 연출했다. 아울러, 다른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해외유물의 전시 비중도 높여 국내외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3층은 ‘해양관’으로, 도입부에 ‘반구대암각화’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연출했으며, 선조들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쌓아온 기록, 예술, 생활 등 해양문화를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문화사의 진수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4층은 ‘항해관’으로, 세계의 선박과 항해도구, 항해기술을 전시했으며, 특히 ‘해도 제작자의 방’과 ‘해상실크로드의 방’ 등을 구성해 관람에 재미를 더했다.

* 석기시대 신석기의 고래사냥 관련 그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새단장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및 공간을 구성하여 국제적인 해양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라며,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이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아 우리의 해양역사를 몸소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강섭 (044-200-5223)
담당 부서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책임자	팀 장	백승주 (051-309-1851)
		담당자	학예사	김진태 (051-309-1853)

참고

국립해양박물관 상설전시관 재개관식

□ 행사개요

- 행 사 명 : 국립해양박물관 상설전시관 재개관식
- 행사일시 : 2023. 9. 15.(금) 14:00~14:40
- 행사장소 : 박물관 1층 대강당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 행사	14:00~14:05	5`	◦ 축하공연	
	14:05~14:10	5`	◦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	
공식 행사	14:10~14:13	3`	◦ 주요 내빈 소개	
	14:13~14:14	1`	◦ 기념영상 상영	◦박물관 역사, 개편 과정
	14:14~14:19	5`	◦ 추진 경과 보고	◦전시기획팀장 발표
	14:19~14:24	5`	◦ 인사말씀	◦박물관장
	14:24~14:34	10`	◦ 축하	
	14:34~14:37	3`	◦ 기념 퍼포먼스	◦전체 피켓 퍼포먼스
	14:37~14:40	5`	◦ 기념촬영 등 마무리	